

*시리즈로 게재되는 [天金]의 글은 자비(自費) 출판하여 대학도서관에 기증한 <훈민정음에 담긴 인류문화사(2017)>의 내용 중, 한국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올린 글의 전후맥락의 정확한 이해와 내용 전체를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특수문자 때문에 출판 과정에 생략한 제3장이 포함된 책의 전문(全文)을 pdf로 변환하여 블로그 <http://blog.daum.net/tiangold>에 올려놓았으니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한글로 작성된 것인데, 훈민정음 고어글자와 특수문자, 도표 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 pdf로 변환한 것을 같이 실으니, 될 수 있으면 pdf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인용 내지 차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天金25] 가야 불가사리 파형동기의 역사문화언어인류학적 이해

김해 대성동의 가야 고분에서 파형동기(波形銅器)로 불리는 장식품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가야와 아르메니아의 문화적 뿌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리엘 골란의 연구에 따르면, Perun의 상징인 소용돌이 로제타 무늬는 ‘하늘, 하늘 여신, 태양, 번개 기호(슬라브인), 주피터의 바퀴(고대 로마인), 지옥신 타라니스(Tarnis/tarann 우레, 켈트 인)’ 등등으로 생각되어졌었다. 그리고 로제타 무늬는 현재 아르메니아를 상징하는 문장(紋章)이기도 한데, 이것은 일본 요시노가리와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파형동기(巴形銅器), 현재 인도 자이나교·힌두교의 상징기호인 만(卍)과 기본 형태가 같고, 태극(太極 ☯) 문양이 회전하는 것과 같다. 이 문양을 잠정적으로 불가사리 문양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로제타 무늬와 Perun의 상징기호, 파형동기 문양, 卍, 태극’은 우주에너지의 운동을 나타낸 상징 기호이다.

이러한 상징기호 도형 중 Perun을 상징하는 육각도형의 육광성(六光星) 모양은 소아시아(7000-6000 BC), 북 메소포타미아(BC 5000년대), 남 카프카스(BC 3000년대)의 토기 문양에 주로 그려졌고, 현재에도 이 주변의 여러 곳에서 그려지고 있다. ‘6광성’에 대해서는 ‘동서남북상하’의 6방위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모양은 눈의 결정체에서도 볼 수 있고, 벌(bee) 집의 구조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완벽한 우주적 구조를 도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도형의 모양이 러시아의 Perun이 있는 초원보다 소아시아에서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Perun 문화의 기본 바탕은 소아시아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이것이 기온 상승기에 북방 초원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러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제타 무늬’로 표현된 이 문화는 온난기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초원지대로 북상하여 Perun 문화로 융합되었고, Sintashta 문화(2100-1800 BC) 시절에 이것을 형상으로 나타

낸 것이 살아 장착된 수레바퀴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최초의 수레바퀴는 마차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바카(baga, 神) 또는 Perun의 상징물로서의 바퀴이고, 이 문화의 전통은 불교의 상징 문장(紋章)인 수레바퀴 모양의 법륜(法輪)에 남아 있다. 그루지야에서는 이러한 문양을 Borjgali로 부른다.

그루지야의 Borjgali (Georgian: ბორჯღაღლი) (or "Borjgala", "Borjgalo")는, 이 문양의 원래 이름과 문화의 성격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다. Borjgali라는 말은 Megrelian 말 ბარჩხალი ("barchkhali")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데, 문자적 의미는 광휘(光輝)"strong shining")이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Megrelian 어 borj("time")와 gal("pass"and or "flow")에서 유래하여 시간의 흐름("the flow of time")을 뜻한다고 믿기도 하는데, 이는 빅뱅 이후 우주적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우주적 공간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우주 에너지가 우주공간에 광휘 분출(轟barch/Borj 天河流)khali/gali)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그루지야에서는 기독교가 주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다분히 기독교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Borjgali(=Bor+j존칭접미사+ gali)는 기독교인이 믿는 생명수(生命樹) 위로 일곱 개의 회전 날개를 달고 돌아가고 있는 태양을 나타내는 그루지야인의 상징이고, 영원함을 나타내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상징과도 연관이 있다. 이 문양은 보통 우주를 상징하는 원 안에 천주(天柱)로서의 우주목(宇宙木)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태양·영원·생명을 상징한다. 우주목 생명수의 뿌리들은 "과거"를 향하여 있고, 손바닥 같이 펼쳐진 나뭇가지들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 나무 자체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그루지야의 Borjgali 문양과 같은 문양의 유물이 일본 큐슈의 Saga현(佐賀県,Saga-ken?) Yoshinogari(吉野ヶ里 遺跡 Yoshinogari iseki) 고고유적지에서 발굴되었다. Saga현과 Nagasaki현(長崎県,Nagasaki-ken?)을 합친 지역에 고대 Hizen국(肥前国,Hizen no kuni?)이 있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일본의 대외 창구 역할을 해온 곳으로, 외부 문화가 일본에 전해지는 입구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배를 타면 바로 한국의 남해안 부산 동삼동과 김해 대성동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만큼 이곳에서 Borjgali 문양이 발견되고, AD 1세기경 큐슈 지역에서 시작된 일본식 파형동기가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발견된 것은, 문화 전파의 자연스러운 현상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요시노가리 지역의 고고 유물은 대체적으로 BC 3세기-AD 3세기의 연대를 보이고, 최근 AMS 방사성 연대측정법으로 측정한 야요이 시대 유물 중에는 BC 400 이전의 것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가장 이른 시기의 Borjgali 문양 유물은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Alexandros the Great 356-323 BC)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Achaemenid Empire (/ə'ki : mənɪd/, Old Persian: haxāmanišiya, from the Persian: "Hakhamanesh"; ca. 550-330 BC), 침공 사건과 관련 있다. 그루지야와 아르메니아 일대 지역은 당시 페르시아의 서쪽 방어선이였다. 알렉산더의 군대에 의해 이곳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을 것인데, 당시 인도에는 Maurya 왕조(322-185 BC)가 버티고 있었기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해외로 망명을 한 사람들 중에 인도 남부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일본 요시노가리 지역으로 이

주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요시노가리는 有明海(Ariake-kai?)에서 12km 떨어져 있는데, Ariake는 태평양 지역의 Ariki(關智)와 그리스 어 'Archon'(왕)과 음이 통하고, 그리스 어 Arche는 시원(始原)("beginning", "origin" or "source of action". (εξ' ἀρχῆς: from the beginning, or εἰς ἀρχῆς λόγος: the original argument))이라는 뜻이다. 이를 볼 때 일본 요시노가리 지역에 배를 타고 이주해온 사람들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지역의 율 문화를 알고 있으며, 그리스어를 접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그곳 문화의 상징이었던 Borjgali 문양 장식을 요시노가리에 전하였고, 그것이 고고유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요시노가리에 정착한 사람들은 배를 타고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왔을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전한 Borjgali 문양은 외국 선진문물의 상징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Borjgali'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불가사리'를 들 수 있다. 한국 전설속의 불가사리는 쇠를 먹는 괴물인데, 이는 이 문화(Borjgali)를 전한 사람들이 제철 산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에는 불가사리를 몸은 곰 같고, 코는 코끼리, 눈은 무소, 꼬리는 소, 다리는 범과 닮았는데 악몽(惡夢)과 사기(邪氣)를 쫓는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는 그가 무(巫)를 행하는 종교가라는 것이다. '불가사리'는 그의 칭호 내지는 이름이었을 것인데, 쇠를 먹는 괴물로 묘사된 것은, 그가 제철산업기술자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바다에 사는 괴물 급의 극괴동물 불가사리는 무엇이든 먹어치우고 번식력이 높다. '불가사리'와 음이 비슷한 어류로 '빠가사리'(동자개)의 강원도 방언)가 있다. '빠가/불가'는 '뱃/뱃, бага, 神)의 음역어로 볼 수 있으니, 이는 '왕'을 칭하는 말 중의 하나이다. 이 이름이 붙은 것은 '최고'라는 의미가 있다. 즉 '불가사리'는 제철기술을 알고 있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선진문물의 종교지도자를 칭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불가사리 같은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무섭고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지배층) 남자(得休えたいの知しれない恐おそろしい男おとこ)를 뜻한다. 이는 그가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의 모습이고, 그의 말기 시대를 지난 추락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이 일본어 '바카/Baka/ばか(馬鹿)(1.바보, 멍청이, 멧덩구리.2.어처구니없음.3.정도가 지나침.4.못쓰게 됨.)와 '수루메/するめ[鯛]/말린 오징어', '수루메이카/するめいか(鯛烏賊)/오징어', '수루미/すりみ[擣(リ)身/어깎 어육(魚肉)]'가 있다.

말린 오징어는 납작한데, 그것을 수루메(するめ)라 하고, 그 정도로 납작하게 어깎 어육을 수루미(すりみ)라 한다. 오징어 다리는 불가사리의 다리와 모양이 비슷한데, 그러한 다리를 달고 있는 대단한 오징어를 '수루메이카'라 하고, 오징어와 비슷하면서 8개의 다리를 달고 있는 더 장대한 문어는 한반도 동해안 일대, 특히 강릉 문화권의 제사상에 반드시 올라야 하는 권위를 누리고 있다. 이는 Suro(首露)에게 올리던 제물(祭物)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를 문어(文魚)로 적는데, 원래 말은 '문어'로 최고(最高) 존자(尊者)라는 뜻이다.



도표16. (Borjgali문양)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르(する, すり, 播(り))’이다. ‘스르’를 한자로 播(り)로 표기하였는데, 우레(雷)를 휘둘러 대는 대단한 존재를 ‘수루메/수루미’로 나타낸 것이다. 이런 ‘스르 ㅁ, 스름 ’를 한국문화권에서는 수로(首露,水路)라 하였고, 이 말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지도자를 칭하는 말 { Sura, Suri, Sari }와 {‘신/왕’을 뜻하는 아카드 어 A-šur, also Aš-šūr, 후르리 Teshub 신의 아들로 나오는 우레 산신 Sharruma, or Sarruma, Šarruma, 한국어 사람}에서 볼 수 있다. 일본어 ‘수루메/수루미’는 아마도 조로아스터교 문화권의 사람들이 전한 말일 것이다.

그래서 ‘불가사리 ’는 ‘ㅁ ㅁ 스르(Baka Suri)’또는 ‘ㅁ 스르’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말은 한국어 문화권에 제철기술을 알고 있는 ‘ㅁ 스르’가 사회의 지도자/지배자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불가사리’는 어류 불가사리의 다리 모양 문양을 한 Borjgali 동기(銅器)를 신분의 상징물로 착용하였던 지배자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요시노가리와 김해 대성동의 무덤에서 나온 파형동기는 ‘Borjgali 동기/불가사리 동기’로 부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이 유물은 한반도 남해안으로 이주해온, 전파되어온 서방 문화의 출처가 어디였는가를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의 연대가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침공 시기, 헬레니즘 문화 시기와 일치하는데, 이 시기에 한반도 남부에 삼한 72소국이 있었다. 그 중에 만로국(萬廬國)과 매로국(邁廬國[mài][lú])이 있었는데, 이들의 유래를 살펴보면, 신라와 가야 초기 사회에

소아시아 반도 일대의 헬레니즘 문화권 사람들이 한반도로 많이 이주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 중에 불가사리 과형동기 문화 집단도 있었을 것이다.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를 두고 아우 키루스(Cyrus the Younger)가 그의 형 Artaxerxes II와 싸울 때, 그리스 인 용병 부대 "Ten Thousand"를 이용하였는데, 당시 그들 지휘자 중에 Xenophon이 《The Anabasis》라는 책 속에 'Cunaxa의 전투'에 참가하고 그리스로 돌아오는 과정을 적어놓았다(401-399 BC). 그의 행군 노선은 알렉산더 대왕(356-323 BC)의 원정노선과 거의 같다. 아마도 알렉산더는 어려서 Xenophon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세계 통일의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 그리스 이오니아 인("Ionians")("Yunan")은 BC 4세기 -AD 1세기에 인도와 관계를 맺었는데, BC 180 그들은 Saketa, Panchala, Mathura and Pataliputra를 공격하였다. 김수로/허왕옥과 관련 있는 아유디아 지역(Saketa)까지 쳐들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남부 출라 왕조와도 무역 거래를 하였다. 이들은 주로 무역거래에 종사하면서 한반도 지역과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스 인이 주축이 된 용병 부대 만(萬)("Ten Thousand")은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나 갔기 때문에, 삼한 72국 중의 만로국(萬盧國)에서 만(萬)("Ten Thousand")을 볼 수 있다. 만로국이 그리스 인 용병부대의 후손이 모여서 만든 나라라고 할 자료적 근거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다. 매로국(邁盧國[mài][lú])의 매(邁)가 다, 멀리 가다, 떠나다, 빙 돌아가다, 지나다, 경과하다, 낫다, 뛰어나다, 넘다, 초월하다, 힘쓰다, 노력하다)와 로(盧)가 밧(로{노}밧그릇, 화로, 창 자루)의 한자 훈은 'ten thousand' 용병대가 당시 페르시아 국경을 거의 한 바퀴 도는 행군을 하여 Cunaxa 전을 치르고, 그리스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매로국은 분명 그리스 용병대 'ten thousand'와 관계있는 이들이 세운 나라로 보인다.

신라 진평왕 때 대내마를 지낸 만세(萬世), 경덕왕 때 상대등 만종(萬宗), 고려 태조 때 전공을 세우고 대광 벼슬에 오른 만세(萬歲), 신종 때 최충헌(崔忠獻)의 사노로 노예해방을 부르짖던 만적(萬積) 등이 만로국의 후손이라는 기록은 찾기 힘들지만, 매로국(邁盧國[mài][lú])의 사성음 므릭([mài][lú])는 이들 조상의 원래 활동 지역이 카스피 해 주변 초원지대에서 아나톨리아 고원 일대에 이르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므릭 항목에서 다루게 된다.